

‘종교인연합 삼일운동백주년기념비’ 건립을 위한 기독교인 모금운동

모금운동의 취지 및 배경

1. 1919년 삼일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지도자 33인이 ‘민족대표’로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일을 위한 기독교측 준비모임은 2월 19일 남대문 밖 이갑성 집에서 이승훈과 함태영, 이갑성, 안세환, 현순, 오화영, 신흥식, 박희도 등이 모여 1) 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측과 연합으로 추진할 것, 2) 서울과 지방의 교회 지도자들을 민족대표로 포섭할 것을 결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자리에서 운동 경비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각자 분담해 융통해 보자.”는 정도로 끝냈다.

2. 2월 20일 기독교측 대표 이승훈은 천도교측 대표 최린을 만나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할 것을 합의한 후, 운동 경비에 관하여 “[기독교측] 동지들까지 각기 분담해 다소간이라도 변통해 보자고 하였으나 시기가 급박하여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니 천도교측에서 우선 5천원 만 돌려주었으면 만사여의할 듯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최린을 통해 이런 부탁을 받은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는 당시 천도교회관 건축을 위해 비축해 두었던 자금 중에서 5천원을 기독교측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 기금 5천 원이 기독교측에 전달되었다.

3. 그렇게 천도교측으로부터 받은 5천원을 이승훈은 박희도에게 맡겨 독립운동 경비로 사용하였다. 검찰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자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았다.

항목		지출 상황
여행비	해외	현순(중국 상해) 2,000원, 안세환(일본 동경) 700원, 김지환(중국 만주) 140원
	국내	김창준 100원, 이갑성 50원, 함태영 50원, 오화영 50원, 정춘수 40원, 최성모 40원
독립선언서 발송비		이갑성 150원, 함태영 50원, 김병수 25원, 김성국 20원, 이주창 20원
수감자 가족 생계비		이필주 100원, 박동완 100원, 신석구 100원, 박희도 100원 이갑성 80원, 오화영 80원, 김창준 80원
기타		한강 인도교 회합을 위한 식비와 교통비 80원

전체 지출 총액 4,240원 가운데 여행 경비가 3,170원(74.7%)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도 중국 상해로 파견한 현순 목사에게 2천원을 지급하였다. 3월 1일 중국 상해에 도착한 현순 목사는 중국과 일본,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삼일운동 직후 상해로 집결한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하여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천도교측에서 지원받은 기금은 상해 임시정부 조직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자금도 기독교 대표들의 국내 활동비와 독립선언서 발송 자금, 수감된 독립운동가 가족 구제비로 사용되었다.

4. 이처럼 모의단계에서부터 기독교와 천도교 지도자들 사이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기에 짧은 준비 기간, 비밀스런 작업이었음에도 삼일운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운동자금

부분에서 천도교측의 ‘통 큰’ 지원이 있었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내외에서 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조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만열과 윤경로, 이덕주 등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2019년 3월, 삼일운동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기독교계가 1백 년 전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도교측에서 빌려 온 5천원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돈으로 갚지 못하면 보은(報恩)의 뜻이라도 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5. 그러던 중 3년 전부터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대표 종교인과 학자들로 구성되어 삼일운동 기념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해 온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박경조 박종화 박남수 도법)와 연결이 되어 1백 년 전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선배 종교인들의 연합과 단결을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는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마침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옛 태화관(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공터에 서울시에서 ‘삼일독립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어 그곳에 ‘종교인연합 삼일운동백주년기념비’를 세우기로 하였다(금년 8·15광복절에 완공 예정).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천도교 총무원 지도부와 협의한 후 2019년 5월 31일, ‘종교인연합 삼일운동백주년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일조 박남수 이만열)를 조직하고 기념비 제작과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6. 이런 배경에서 조직된 ‘종교인연합 삼일운동 백주년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기독교측 위원(박경조 박종화 윤경로 이만열 이덕주)들은 기념비 제작과 건립에 필요한 자금(총 1억 원 예상) 중 기독교 몫으로 책정된 5천만 원을 모금함에 50만원 구좌를 부담할 1백 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백 년 전 기독교 대표자들이 개인적인 결단과 의지로 삼일운동에 참여한 것 같이 기념비 건립기금 모금도 개인 중심으로 하되 교회나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금을 위해 기독교계 원로들(김장환 신경하 이양호 이영훈 이정익 장차남 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모금 계좌: 국민은행 069101-04-240358 예금주: 이만열(종교인3·1운동백주년기념비)

모금 안내 및 문의: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02-2226-0850



종교인 연합 ‘삼일운동백주년기념비’ 건립 취지문

백 년 전 그 날, 종교인들은 무너졌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천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침략과 지배 아래 주권국가로서 자유와 권리를 상실한 채 허무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제합병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악탈과 차별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나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점차 그 힘을 잃어 현재에 대한 열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지 못하고 있을 때 다만 종교인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한 나라임을, 자주하는 민족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며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자손만대에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백 년 전 그 날, 종교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파리 세계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고종황제의 급작스런 승하 소식을 접한 종교인들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강탈과 억압으로 점철되었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양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순리와 시대의 흐름에서 거역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종교인들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백 년 전 그 날, 종교인들은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단결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나리라.”

급박한 상황에서 불과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뢰와 협력,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준비기간 막판에 천도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측에 거액의 운동자금을 흔쾌히 지원하여 중국과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고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배포하고 수감된 독립운동가 가족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인들은 교파주의와 종파주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었기에 민족을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선배 종교인들의 꿈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의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 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바탕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침략과 억압으로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정의에 바탕을 둔 참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후 백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남아 있음은 물론이고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정치·군사적 경쟁으로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백 년 전 ‘독립너머 평화’를 내다보며 만세를 불렀던 선배들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 ‘통일너머 평화’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배 종교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기는 기념비를 세우려합니다.

백 년 전 그 날, 종교인들은 그 암울했던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의 지혜와 용기, 연합과 협력이 있었기에 거족적인 삼일독립만세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를 불렀던 옛 태화관 그 자리에 작은 돌비 하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백 년 전 선배들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백 년 후 우리 후손들이 한반도에서 누릴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으려 합니다. 백 년 전 ‘선한 의지’ 하나로 작은 힘을 함께 모아 큰일을 이루었던 선배들의 도우심이 민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수천 년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돕고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앞에 있는 광명으로 나아갈 따름이라.”

2019년 5월 31일

삼일운동백주년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박남수 윤석산 염상철 주선원(이상 천도교계) 일감 덕조 원철 도법(이상 불교계) 박경조 박종화 박인주 이일영(이상 기독교계) 윤경로 이만열 이덕주(이상 역사학계)

